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 코로나19의 특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로서 변종이 쉽게 일어나 백신 개발이 어렵고, 치료제가 없는 상태
- 기존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비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
 - 2003년에 유행한 사스와 비교하면 확산 속도는 20~30배이며, 중국의 교통인프라인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공망의 발달이 원인
 -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와 중국의 대명절 춘절이 맞물려 인구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 (1,100만의 우한 인구 중 약 500만 명이 국내외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
- 다행인 점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낮은 치사율
 - 2003년 사스의 치사율은 10%, 2015년 메르스의 치사율이 19%인 점에 비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월 24일 현재까지 3% 수준을 유지

□ 코로나19의 확산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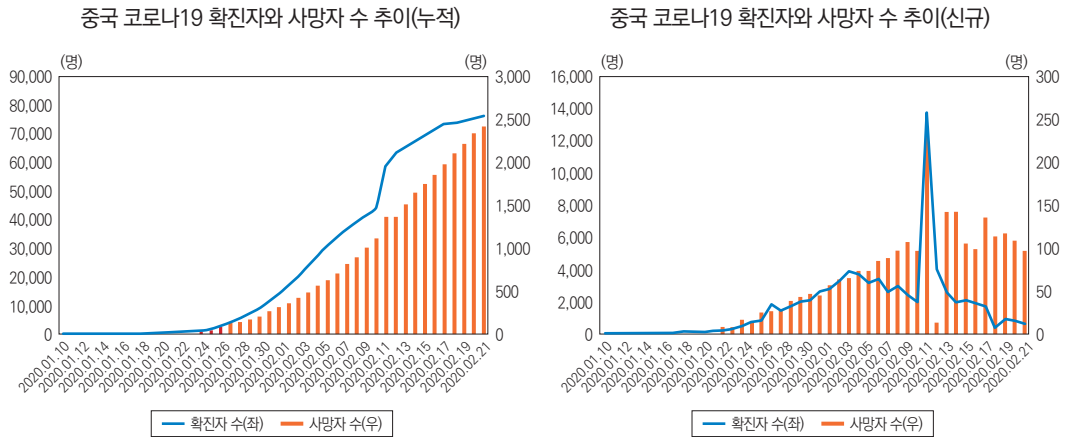
-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수산시장에서 첫 발병한 이래 약 2개월간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
- 중국 정부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다소 안이한 상황 인식
 - 중국 정부는 1월 26일 춘절 연휴를 연장, 국내외 단체 관광 중지, 개학 연기 등을 발표하고, 중앙 위생건강위원회에서 일별 상황을 발표
 - WHO도 두 차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위원회를 열었으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판단을 미루다가 1월 31일에서야 선포

〈표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일지

일자	주요 정보
2019-12-12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병
2019-12-31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27명 보고
2020-01-09	우한 위생건강위원회 질병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표
2020-01-11	코로나19 확진자 41명 공식 발표
2020-01-20	우한 이외 지역 환자 발생(베이징 2명, 광둥 선전 1명)
2020-01-21	중국 보건 당국 전문가 '사람 간 전염 확증적', 미국 첫 환자 발생
2020-01-23	우한 출입 봉쇄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이르다' 판단
2020-01-25	중앙정치국 상무회의 개최, 코로나19 예방 퇴치 업무 보고
2020-01-26	춘절 연휴 2/2 연장, 국내외 단체 관광 중단, 개학 연기 발표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잠복기 전염력', 일별 상황 발표, 군 의료진 파견
2020-01-27	리커창 총리 우한 시찰
2020-01-30	북경시 사스 전문 샤오탕산(小湯山) 병원 재개원 준비
2020-01-31	중국, 춘절 이후 출근일 2월 10일로 연기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2020-02-10	시진핑 주석 베이징 디탄(地壇) 병원 시찰
2020-02-13	후베이성과 우한시 당 서기 교체
2020-02-23	시진핑 주석 순차적 경제활동 재개

자료: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201058000097?input=1195m>) 등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추이



자료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http://www.nhc.gov.cn/>).

- 한국은 우한에 전세기를 세 차례 투입하여 우한 교민을 한국으로 이송
 - 1월 31일과 2월 1일 전세기를 투입하여 701명의 우한 교민을 이송한 데 이어, 2월 12일 147명 (교민 79명, 외국 국적 68명)을 이송하여 총 780명 교민을 이송
-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면 아직 확산기이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로 보면 점차 감소 추세
 - 2월 2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7,000명, 누적 사망자 수는 2,400명을 초과하여 2개월 만에 급속히 확산
- 코로나19의 감염자는 전 세계 33개 국가로 확산되었으나 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발원지 후베이성에 집중
 - 2월 24일 자정 기준 전 세계 감염자(7만 9,360명)와 사망자(2,619명) 중에서 중국의 감염자(7만 7,150명)와 사망자(2,592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중 후베이성 감염자(6만 4,287명)와 사망자(2,495명)가 각각 83%와 96%를 차지¹⁾

1) Coronavirus COVID-19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https://gisanddata.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접속일: 2020.2.24).

〈표 2〉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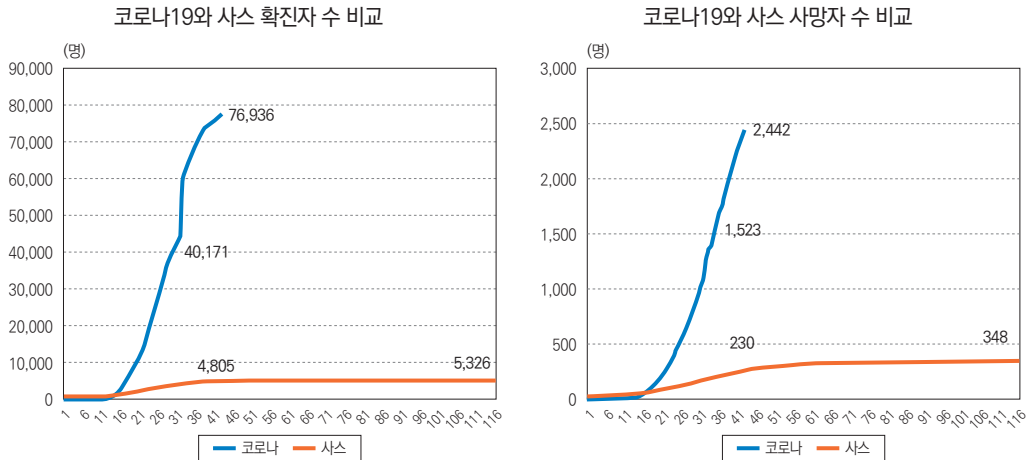
	세부 항목	감염자(명)	사망자(명)	치사율(%)
사스 (2002.11~2003.7)	전 세계	8,098	774	9.6
	중국	5,327	348	6.6
	홍콩	1,755	299	17.0
메르스	메르스(2015.3~10)	1,599	574	35.9
	메르스(2012~2019)	2,494	858	34.4
코로나19 (2020.2.24)	전 세계	79,360	2,619	3.3
	중국	77,150	2,592	3.4

자료: 사스 관련 자료는 WHO(https://www.who.int/csr/sars/country/table2003_09_23/en/), 메르스(2015) 관련 자료는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 메르스(2012~2019) 관련 자료는 WHO(<https://www.who.int/emergencies/mers-cov/en/>) 참조.

□ 코로나19와 사스(2003년) 및 메르스(2012년~2015년)와 비교

-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
 - 원인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로 코로나19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잠복기는 2~7일이며, 최장 10일까지 잠복
 - WHO에 따르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전 세계 감염자 수는 8,098명이며, 사망자 수는 774명으로 치사율은 9.6%
- 메르스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발생 지역과 매개체에서 차이
 -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점에서 같지만 발생 지역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이며, 낙타가 주요 매개체로 알려졌다며, 발생 기간도 2012년 6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다시 유행한 점에서 차이
- 코로나19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
 -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2월 24일 기준 7만 7,000명으로 사스 때 확진자 수의 14배에 달하며, 사망자 수는 2,600명으로 사스 때 사망자 수의 7배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그림 2〉 중국 내 코로나19와 사스 비교



자료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http://www.nhc.gov.cn/>).

-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코로나19가 사스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할 것
-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또는 언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통제 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 알기 어려운 수준
 -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이고 변종이 쉽게 나타나며 정확한 원인이나 감염경로가 불확실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 대책의 실효성이 불확실
- 코로나19와 사스 때의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발병자가 집계되어 발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30~40일이 지난 시점에 정점에 달하고 이후 점차 축소하기 시작²⁾
 - 단순히 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례를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점차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

2) 2003년 사스 때는 WHO가 3월 17일 전 세계 통계를 발표한 데 비해, 중국은 2주(14일) 늦은 3월 31일부터 중국 통계를 발표한 점을 감안할 필요.

2.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나리오 분석

□ 코로나19의 영향 증가 요인

- 중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
 - 사스 때는 발원지인 광둥성과 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데 비해, 코로나19는 상하이, 베이징, 톈진, 충칭, 광둥, 저장, 산둥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대
- 중국 서비스업의 비중이 2003년 사스 때에 비해 증가
 - 2003년 당시에 비해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2003년 42.0%에서 2019년 53.9%로 11.9% 포인트 증가하였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42.3%에서 2018년 45.8%로 증가
-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 추세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가능
 - 2003년은 WTO 가입 이후에 수출 등이 확대되던 시기였던 반면, 2020년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환경이 중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제약
- 2003년에 비해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발달로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될 우려

□ 코로나19의 영향 감소 요인

- 경제구조의 문제가 아닌, 전염병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
 - 과거 사스 때에도 확산기에는 경제활동이 급격히 경색되었으나 종결된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V자형으로 회복되어 일시적인 영향
- 오프라인 소비 대신 온라인 소비, 또는 홈 경제(宅經濟) 현상으로 대체
 - 인구 이동의 제한으로 오프라인의 소비는 급감했지만,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소비의 활성화로 경제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 중국 정부의 대응 체계의 개선 및 국제 공조
 - 사스 때 1개월 반 동안 통제된 것에 비하면, 우한시의 대처가 안이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대응 체계는 개선

- 국제 지원과 공조, 우한 주재 외국인의 해외 이송, 중국 의료기술과 시설의 개선 등이 2003년에 비해 확산 저지에 기여
- 낮은 치사율이 영향 제한 요인으로 작용
 -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는 영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나, 치사율이 낮은 점은 영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용

□ 시나리오 분석³⁾

- 2020년 2월 24일 현재로서는 언제 확산기에서 정점을 찍고 쇠퇴기로 접어들지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시나리오로 접근
 -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증가세는 둔화되는 상태이나,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
- (시나리오 1) 낙관적 견해로 전염병이 단기간 지속되고 봉쇄방식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3월 초 정점에 달한 후 쇠퇴기로 진입하고 4월 이후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⁴⁾
 - 중난산(鐘南山) 원사 등에 따르면 잠복기 14일을 가정하면, 1월 20일 춘절 이동 이후 1차 잠복기가 2월 2일, 2차 잠복기가 2월 16일, 외지인 복귀 이후 2주간 격리 등을 거치면,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감소 가능
- (시나리오 2) 4월 말~5월 초 정점에 달한 후 쇠퇴기로 진입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6월경에 종결⁵⁾
 - 바이러스의 생명은 온도와 습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발생지 우한의 평균 온도가 25도에 달하는 5월 이후에는 쇠퇴한다는 견해
 - 중국인의 이동 감소, 외국인의 중국 관광 감소, 물자의 검사 및 검역 강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 증대

3) 恒大研究院(2020.1.31), 疫情对中国经济的影响分析与政策建议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4) 恒大研究院의 분기별 성장률 예측은 4%, 6%, 5.8%, 5.6%로 연간 5.4%.

5) 恒大研究院의 분기별 성장률 예측은 4%, 5%, 6%, 5.8%로 연간 5.2%.

〈표 3〉 주요 금융기관의 중국 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발표일	1/4분기 (코로나)	1/4분기 (이전)	2020년 (코로나)	2020년 (이전)
Citi	2.11	3.6	4.8	5.3	5.5
Barclays	2.7	4.0	5.8	5.4	5.8
Nomura	2.6	3.8	5.8	5.6	5.7
Macquaire	2.3	4.0	5.8	5.6	5.9
Oxford Economics	2.3	4.0	6.0	5.4	6.0
Bloomberg Economics	1.31	4.5	5.9	5.7	5.9
Standard Chartered	1.31	4.5	6.0	5.8	6.1
Goldman Sachs	1.31	4.0	5.6	5.5	5.9
평균		4.1	5.8	5.6	5.9

자료: Bloomberg News(2020.2.11), "Economists Cut China's Growth Forecast on Coronavirus Impact".

주: 평균은 씨티그룹을 제외한 값으로 저자 작성. 블룸버그는 연간 성장률 5.9%에서 5.8%로 하락 전망.

- (시나리오 3) 비관적 견해로 잠복기가 길고 돌연변이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거나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여, 6~7월 이후까지 확산되는 경우⁶⁾
 - 춘절 인구 대이동 시기에 우한의 500만 명이 이미 중국의 국내외로 이동하여 통제가 곤란하고, 돌연변이의 발생이나 방역 당국의 방역망 외부에서 확산될 경우, 상황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하반기까지 지속

□ 주요 기관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코로나19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주요 금융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대부분 코로나19가 1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기존의 5.8%에서 4.1%로 하향 조정
 - 바이러스가 통제 또는 안정화되면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지만, 2020년 성장률은 5.9%에서 5.6%로 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

⁶⁾ 헝다연구원의 분기별 성장률 예측은 4%, 5%, 6%, 6%로 연간 5.0%.

3. 중국의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인구 이동 제약에 따른 서비스산업 충격과 소비 감소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인구 이동 통제, 다중이용시설 통제, 단체 관광 금지 등에 따라 서비스업 소비가 직접적인 타격
 - 외식, 여행, 영화, 교통 운수, 교육 훈련 등의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며, 반대로 의약품, 온라인 게임 등은 시장이 확대될 전망⁷⁾
 - 恒大(恒大)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영화는 70억 위안, 외식은 5,000억 위안, 여행시장은 5,000억 위안으로 계산하면, 3개 업종의 직접적 경제손실만 1조 위안으로 2019년 1분기 GDP 21조 2,000억 위안의 4.6%를 차지
 - 중국은 최근 연간 1억 5,000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하고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 수는 6,000만 명 정도인데, 인구 이동 제한으로 관광산업에 직접적 영향
 - 중국의 2020년 춘절 연휴 전후 40일간(1월 10일~2월 18일) 철도이용객은 2억 1,000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억 9,600만 명(48.3%)이나 감소⁸⁾
- 2003년에 비해 2019년에는 3차 산업의 비중과 소비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는 서비스업 소비에 큰 영향
 - 2003년에 비해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진 데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11.9% 포인트 상승한 53.9%)하여 바이러스 확산의 피해 심각
 - 2003년 사스 기간(2002년 11월~2003년 7월)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여행객 수는 6.8%, 외국인 여행객 수는 14.1%, 관광 수입은 14.0%, 외국인 관광 수입은 35.3% 각각 감소⁹⁾

7) 恒大研究院(2020.1.31), 疫情对中国经济的影响分析与政策建议(<https://mp.weixin.qq.com/s/LQvfD46G5aTtelGbelQe3Q>) 참조.

8) 바이두(2020.2.19), 철도이용객은 춘절 이전(1/10~24)은 1억 6,800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2% 증가하였으나, 춘절 이후(1/5~2/18)는 4,250만 명으로 83.8% 감소하여 인구 이동이 급감.

9) CEIC data 이용 전년동기(2001년 11월~2002년 7월) 대비 계산한 결과.

□ 제조업의 조업 차질로 인한 생산 감소와 이에 따른 투자 및 고용 감소

- 춘절 연휴의 연장 및 조업 개시일 연장 등으로 인하여 조업 차질
 -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업 재개일을 2월 10일로 1주일가량 더 연장하여 조업 중단 일수는 10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조업에는 차질 발생
- 소재 및 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여 공장 가동의 중단 등이 발생
 -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소재, 부품 등을 공급받지 못하여 생산공정 전체를 가동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
 - 텐진시 TV 공장, 저장성 선박, 광둥성 포산시 철강공장 등은 소재 및 부품 조달의 애로로 인하여 조업 재개 시기를 1주일 연기(2월 17일 조업 재개)
- 기업이 조업 재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 이행에 추가 비용 소요
 - 기업이 공장 재가동을 신청하면, 지방정부는 방역 준비 등을 평가한 뒤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조업 재개를 승인
 - * 지방정부 평가 요건 : 직원 건강상태 보고, 회사 출입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및 세정제 구비, 격리실 마련, 긴급 상황 핫라인 구축 등
- 조업을 개시하더라도 종업원의 출근 제한으로 생산 가동률은 떨어져 생산의 감소는 불가피
 - 작업 현장의 감염증 예방을 위한 소독, 안전 조치 등이 필요한데, 마스크, 세정제, 소독약, 체온계 등 위생방역 물품을 조달하는 데 애로
 - 종업원 중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외지 출신인 경우 14일의 잠복기 동안 자가격리가 필요하여 당장 생산공정 배치가 불가능
 - 감염증 발생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00% 임금을 지급하며, 회사 측의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종업원과 협의하되 약 70%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회사는 추가 비용 발생
- 공장 가동 중단, 가동률 하락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며, 이는 다시 기업의 고용 감소와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건설 등에서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저하

□ 물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물류 차질로 수출입 감소

- 인구 및 물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물류 차질(납품 및 출고 지연 등)로 인한 수출입 감소
 - 인원과 물자의 이동 통제, 물류업체의 조업 중단, 교통 수송력의 저하 등으로 제품 배송 지연 문제 발생
 - 헨진의 경우 세관, 공상국, 은행 등 행정기관의 장기간 휴무로 B/L,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이 불가하여 선적된 제품 출하 불가 상황 발생

박재곤_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